

# 구례 시단의 지역정서 표출양상\*

황수정\*\*

## 〈차 례〉

1. 머리말
2. 연곡사에 흐르는 詩情
3. 용호정에서의 만남과 이별
4. 오봉산에 감도는 신이성
5.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구례 시단의 지역정서 표출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황매천과 구례 시인들의 작품 중에서 구례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드러난 작품에 초점을 두었다. 이처럼 지역성이 부각된 시는 지역의 독특한 정서와 미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들 시를 통해 역동적이면서도 사실적인 미감을 조명할 수 있다. 특히 구례의 명소 중에서 연곡사와 용호정, 그리고 오봉산은 그들의 역사와 멋이 담긴 대표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곳에 대해 읊은 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연곡사에 대한 시에서는 주로 강개한 정서를 표출하였다. 아름다운 경관을 갖춘 연곡사에서 있었던 역사적 상흔은 구례인들에게 비장한 마음가짐과 강개한 기상을 이어갈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되새김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손들에게 강한 정신적 유산으로 계승됨을 그렸다.

둘째, 용호정에 대한 시에서는 애상적인 정조가 드러났다. 용호정에서는 주로

\* 이 논문은 2009년 8월 21일 조선대학교에서 개최한 ‘한국고시가문학회 전국학술 발표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중국 북경어언대

유민의 한을 토로하였다. 이는 개인적인 이별의 정조를 넘어선 나라 잃은 백성의 슬픔을 표출한 것이다.

셋째, 오봉산에 대한 시는 낭만성을 부각시켰다. 오봉산의 신비한 모습을 통해 낭만적인 정감을 드러냈다. 이는 현재의 어려움을 소박한 멋과 풍류로 안위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고, 내일을 여는 힘을 얻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황매천과 구례 시인들은 지역의 역사와 멋을 기리며 진솔한 정감을 담아냈다. 이러한 바탕 위에 지역의 독특한 정서를 표출하였다. 때로는 강개하게 때로는 애상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낭만적으로 구례인의 서정을 노래한 것이다.

핵심어 : 지역정서, 황매천, 구례 시인, 강개, 애상, 낭만

## 1. 머리말

본고는 구례 시단이 그려낸 지역정서 표출양상에 초점을 둔 것이다. 梅泉 黃玹(1855~1910)을 중심으로 그와 교류하였던 구례 시인들의 작품 중에서 지역정서가 드러난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지역의 유적과 문화, 그리고 설화 등을 토대로 형상화한 시를 논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의 독특한 정서와 미감을 읽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매천은 당시 전국적인 명망을 얻으면서 활동한 시인이었다. 매천을 비롯해서 그와 교류한 구례 시인들은 스승과 제자, 그리고 벗으로서의 관계를 형성하며 구례의 시정을 노래하였다. 이들은 매천과 함께 구례에서 작시활동을 하며, 그 흐름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sup>1)</sup>

1) 김정환, 「梅泉詩派研究」,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6.

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6.

——, 「川社 王錫輔 詩 연구」, 『한문교육연구』 3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309~336쪽.

이들이 보여준 고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정서의 표출은 역동적이면서도 사실적인 미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구례는 지리산과 섬진강에 둘러싸여 있어 많은 유적지와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구례인의 치열한 삶이 드러나고, 이들의 만남과 서정, 그리고 낭만을 그린 시를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연곡사와 용호정, 그리고 오봉산에 대한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에 대한 시를 통해 매천을 비롯한 구례 시인들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역동적이면서 생동감 있는 시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정서에 대한 표현은 지역민의 삶을 대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적이면서도 현장감 있는 문화아이콘이 된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의 특수한 정서가 부각되어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 2. 연곡사에 흐르는 詩情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에 있는 燕谷寺<sup>2)</sup>는 543년(백제 성왕 21년)에 화엄사종주 연기조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연곡사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수많은 병화를 겪었다. 임진왜란 때에는 왜군에 의해 소실되었다가 다시

\_\_\_\_\_. 「西堂 尹鍾均의 삶과 詩 연구」,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기문학회, 2008, 345~368쪽.

\_\_\_\_\_. 「19세기 말~20세기 초 구례 지역 한시의 전개 양상」, 『고시가연구』 24집, 한국고시기문학회, 2009, 319~348쪽.

\_\_\_\_\_. 「왕천사 일가의 시적 交感」, 『호남문화연구』 46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09, 325~351쪽.

2) 연기조사가 처음 이곳에 와서 풍수지리를 보고 있을 때 현재의 법당 자리에 연못이 있었다. 그 연못을 유심히 바라보던 중 가운데 부분에서 물이 소용돌이치더니 제비 한마리가 날아갔다. 이를 보고 그 자리에 연못을 메우고 법당을 지었다. 절 이름을 '燕谷寺'라고 했다. (『구례군지』 중, 715쪽 참조)

6·25전쟁으로 소실되기도 했다. 이후 복원 불사가 계속되었고, 지금은 대부분 최근에 지어진 것이다. 매천은 젊은 시절에 연곡사에 대하여 읊기를, ‘새벽하늘에 별 은하수 지워져 가고, 빈 골짜기에 물바람은 서로 치고 소리를 내네(曉天星漢政搖落 空谷水風相激呼).’<sup>3)</sup>라고 하였다. 또한 素琴王師天(1842~1906)<sup>4)</sup>은 ‘인가 정원에 인삼 싹이 자라고, 지난 객 옷 적삼에 돌 기운이 떨어지네(居人院落蓼苗長 過客衣衫石氣零).’<sup>5)</sup>라고 하며 연곡사 주변의 풍광을 그렸다. 이처럼 피아골에 위치한 연곡사의 풍치는 한적하면서도 청정하게 그려진 바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역사적 소용돌이는 자못 비장한 정서를 갖추게 하였다. 즉 연곡사는 항일의병의 본거지로 수백 명의 의병이 왜군에 대항했던 곳이다. 그 속에 치열한 삶과 죽음, 항쟁과 절의가 내재하였다. 그 중심인물이 담양 출신의 의병장 高光洵(1848~1907)<sup>6)</sup>이다. 그는 1907년 8월 26일 지리산 연곡사에 근거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때 왜적의 기습으로 패전하였고 순절하였다. 당시 순절한 의병장 고헌순의 비가 지금도 연곡사 경내 동백나무숲 아래에 있다. 이에 대해 매천을 비롯한 구례시인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千峰燕谷鬱蒼蒼	일천 봉우리 연곡이 울창하니
小劫虫沙也國殤	작은 난리에 충사는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이네.
戰馬散從禾隴臥	전마는 흐트러져 벼논두렁 따라 누웠고

3) 황현, 「燕谷寺」, 『황현전집』 상, 39쪽.

4) 川社 王錫輔(1816~1868)의 둘째 아들로 자는 則之이다. 소금은 성품과 도량이 활달하여 산천에서 노닐면서 당세 귀한 선비들과 두루 교유하였다. 매천은 소금을 가리켜 병조, 이조 대신을 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하였다. (장선희, 「매월음사 연구」, 『한국언어문학』 47집, 한국언어학회, 2001, 208~209쪽 참조)

5) 王師天, 「燕谷曉發」, 『開城家稿』 卷三, 22쪽.

6) 고헌순의 자는 瑞伯, 호는 鹿川이다. 전남 담양 출신으로 霧峰 高敬命(1533~1592)의 후손이다. 을미사변을 계기로 의병을 일으켜 일본 침략에 항거하였다. 그 후, 同福에서 왜적을 대파한 후 구례 연곡사를 본영으로 삼고 접전하다가 왜적의 야습으로 연곡사에서 전사하였다. (최승효 편, 『문목취편』 하권, 66쪽 참조)

神鳥齊下樹陰翔	신오는 일제히 나무그늘에 내려 날개 치네.
我曹文字終安用	우리들의 문자는 마침내 어디에 쓰일까
名祖家聲不可當	명조의 가성은 당할 수 없네.
獨向西風彈熱淚	홀로 서풍을 향하여 뜨거운 눈물을 뿌리니
新墳突兀菊花傍	새 분묘가 국화 옆에 우뚝하네.

黃玟, 「燕谷寺戰場弔高義將光洵」(『매천전집』 권1)

이 시는 매천의 작품이다. 고광순의 뛰어난 의기와 이름 없는 백성들의 희생을 드러냈다. 연곡사 주변의 울창한 모습과 당시의 처절했던 의병들의 모습을 대비시켜서 더욱 비애롭다.<sup>7)</sup> ‘虫沙’는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을 말한다.<sup>8)</sup> 즉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대의를 위해 충심을 다했던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그러면서 의병들의 실천적 행동에 비해 글 아는 이의 쓰임에 대해 고뇌하고 있다. 고광순은 조선 중기 선조 때의 문인이자 의병장이었던 고경명의 후손이다. 제봉은 임진왜란 때 금산싸움에서 왜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인물이다. 이로써 ‘名祖家聲不可當’이라 하여 고광순 집안의 의기로움을 그린 것이다. 또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모습을 시각화하였고 가을날 순사한 고광순의 절의를 ‘新墳突兀菊花傍’라 하여 비장감을 담아냈다. 이로써 연곡사에서의 절곡의 역사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

千秋燕谷佛無靈	천추의 연곡에 부처도 영험이 없으니
義鼓聲殘鬼火青	의병의 북소리 사라지고 도깨비불만 푸르네.
多少行人揮淚地	다소의 행인이 눈물을 뿌리는 땅에
孤松落落片雲停	외로운 솔 낙낙하고 조각구름 멈추었네.

尹鍾均, 「憑弔高義將光洵」(『酉堂集』 卷二)

이 작품은 酉堂 尹鍾均(1861~1941)<sup>9)</sup>의 시이다. 여기에 유당은 “매

7) 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6, 126쪽 참조.  
 8) 주나라 목왕이 주유천하 할 때 군사들이 그를 따르다가 전사하여 벌레가 되고 모래가 되었다는 이야기에 유래한 말이다.  
 9) 유당에 대해서는 황수정의 「유당 윤종균의 삶과 시 연구」(『고시가연구』 21집,

천·소천·현곡과 밤에 연곡사로 가서 일환의 돈으로 마을 장정을 사서 시신을 거두고 절 옆에 묻고 글을 지었다.”<sup>10)</sup>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유당은 이 시에서 천년의 역사를 갖춘 연곡사에서 겪은 치열한 전투는 부처의 영험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고 그리고 있다. 그래서 당당하던 의병의 북소리는 잦아들고, 암흑천지에 도깨비불만 푸르게 빛나고 있음을 그렸다. 이는 당차고 강개했던 의병의 기운이 스러지고 쓸쓸하게 적막해진 사찰, 즉 패전지로서의 고적감이 드러난다. 또한 유당은 「燕谷寺」라는 작품을 통해서도 연곡사의 내력과 함께 고광순의 원통한 죽음을 그린 바 있다. 즉 ‘나라의 의병장 원통한 피가 푸르고 한번 졌으니 빈산에 부처님도 영험이 없네(國朝義將冤血青 一敗空山佛無靈).’<sup>11)</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광순을 비롯한 의병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각인되고 계승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孤松落落’이라 하여 소나무의 높고 높음을 비유하여 고광순의 기상과 절의가 우뚝함을 드러냈다. 비록 지난 사적이 현재는 쓸쓸한 옛터로 남아있지만, 그 곳에 담긴 정신만은 유유히 흐를 것을 말한 것이다.

滿朝將相皆羞癡	조정 가득한 將相들 모두 부끄러운데
白面書生立節奇	백면서생은 기특한 절개 세웠네.
生保江淮千算計	살아서 강회를 보전하려고 천 가지로 계산했고
死存社稷一心期	죽어서 사직을 보전하려고 한 마음으로 기약을 했네.
方壺秋色爭高日	지리산 가을빛은 높이를 다투고
燕谷溪流欲咽時	연곡의 흐르는 시냇물 목메어 우는 듯.
萬古不泯忠義字	만고에 길이 남을 忠義 두 글자
後論青史第看之	훗날 역사에 기록해 두고두고 보리라.

王粹煥, 「次高義將韻」(『문목취편』 하권, 66쪽)

이 시는 雲樵 王粹煥(1865~1926)<sup>12)</sup>의 작품이다. 운초 또한 연곡사에

2008, 345~368쪽)를 참조할 수 있다.

10) “梅泉 小川 玄谷 夜往燕谷 以一園金 買村丁收尸 瘞于寺傍 作文以祭.” (윤종균, 「憑弔高義將光洵」, 『유당집』)

11) 윤종균, 「燕谷寺」, 『酉堂集』 卷二.

12) 川社의 손자이고 鳳洲 王師覺(1836~1895)의 아들이다. 천사일가의 시집인 『開城

서 있었던 역사적 상흔에 귀 기울인 것이다. 조정에는 많은 장수와 재상이 있으나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백면서생 고향순은 그 절개를 다하였음을 그렸다. 따라서 고향순에 대하여 읊기를, 살아서는 나라를 위해 그 기개를 다했고, 죽어서 나라의 보존을 위해 그 신명을 다했음을 드러냈다. 이는 중국 당나라 張巡과 許遠 두 사람이 안록산의 난 때 강희의 수양성을 사수한 것을 비유한 것이다. 살아서는 비장한 정신으로 구례인을 집결시켰고, 죽어서는 강개한 기상을 구례인에게 남겼음을 그렸다.

이처럼 수련과 함련에서는 고향순의 결의에 찬 행동을 유추할 수 있다. 경련과 미련에서는 남은 자가 느끼는 지난 역사의 상흔을 그렸다. 지리산의 청명한 가을빛은 마치 의병의 높은 기상과 그 높이를 닮는 듯하다고 본 것이다. 연곡사를 감싸안은 지리산의 맑은 기상과 고향순의 의로운 죽음을 동시에 연결시킨 것이다. 또한 연곡사 옆에 흐르는 피아골계곡은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듯 흐른다고 하였다. 이는 주변경물에 시인의 감정을 이입하여 자연경물의 모습과 시인의 서정을 합일시킨 것이다. 따라서 미련에서 만고에 남을 충의는 길이 역사에 남을 것임을 그려냈다. 과거의 상흔을 통해서 구례인에게 내재된 강건한 기상과 비장한 정신을 표출한 것이다.

### 3. 용호정에서의 만남과 이별

龍湖亭은 구례군 토지면 용두리<sup>13)</sup>에 위치하고 있다. 호남의 누정과 그

家稿』를 수습하고 간행하였다. 매천의 아우 石田 黃瓊(1870~1944)과 더불어 매천의 유지를 받들며 교육 및 문집편찬 활동 등을 한 인물이다. (장선희, 앞의 논문, 221~222쪽 참조)

13) 지리산 노고단에서 서남쪽으로 20km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풍수지리학적으로 용의 머리형 자리라 하여 마을이름이 ‘龍頭里’이다. 이곳에 砭齋 崔蘊이 소요자적한 龍頭亭이 있었는데 현존하지 않고, 지금의 용호정이 있는 자리와는 일치하지 않는

문학에 대해서는 이미 축적된 연구성과가 있다.<sup>14)</sup> 16세기 호남시단의 뒤를 이어 19세기 초 이후에 구례시인들의 주요 모임장소였던 구례의 누정에 대해서는 제고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구례에는 현존하지 않은 누정 10여 곳을 포함하여 45군데의 누정이 있다.<sup>15)</sup> 그 중에서 구례에서 그 규모가 크고 시사의 주장소였던 누정으로는 용호정, 雲興亭, 方壺亭 등이 있다.

이처럼 문학과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호남의 도처에 건축된 누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누정에서는 문학과 예술을 향유하면서 서로 시를 수창하는 경우가 많았다.<sup>16)</sup> 특히 1917년 창건과 함께 용호정을 중심으로 ‘龍湖亭詩契’라는 모임이 이루어졌다.<sup>17)</sup> 이곳에서는 활발한 음영 활동으로 國恥에 대한 한을 달래며 선현의 유지를 추모하기도 하였다.<sup>18)</sup> 용호정 아래로 큰 바위가 있어 이를 용대라 하였고, 그 아래에 용소가 있는데 이곳에 배가 정박하였었다.<sup>19)</sup> 특히 용호정에서는 우국에 대한 정이나 만남과 이별에 대한 슬회를 읊은 시가 많다. 이곳이 예로부터 섬진강 변의 빼어난 절경과 더불어 배가 드나들었던 장소였던 이유가 큰 것 같다. 따라서 구례인들의 서정과 이별의 정한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다.

名勝吾鄉有此臺  명승지인 우리 고향에 이 누대가 있으니  
登臨全境眼中廻  올라보니 전경이 눈 속에 도네.

다. 두 정자는 별개의 것이다. (전 구례문화원장 문승이 선생의 도움말 참조)

14)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출판부, 1998.

15) 매천의 서실이 있었던 간전면의 一笠亭을 비롯해서 각 면별 3~10군데의 정자가 있고, 토지면에는 雲鳥樓까지 포함하여 11군데의 누정이 있다.

16) 권순열, 「놀이 박상 연구」,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19쪽.

17) 이곳에서 모임을 이룬 문인들은 대부분 매천의 순절에 대한 유지를 받들고 우국 정신의 고취에 주목적을 두었던 듯하다. (장선희, 앞의 논문, 215~216쪽 참조)

구례문화원, 『龍湖亭詩稿』, 호남문화사, 1996, 14~15쪽 참조.

—————, 『용호정시계 규약』, 위의 책, 21~25쪽 참조.

18) 황수정, 앞의 논문, 364쪽 참조.

19) 용두리, 금내리, 오미리, 사도리, 광평리 등을 오가는 渡船 또는 津船이 있었다. 그래서 문척나루, 동방나루라는 명칭도 있었고, 이곳 용두리는 용의 머리 형상이라 하여 ‘龍頭나루’라고 하였다. (전 구례문화원장 문승이 선생의 도움말 참조)

西風畫角孤城動    서풍에 화각소리는 외로운 성에서 동하고  
 疎雨空江一帆來    가랑비 내리는 빈 강에 한 돛대가 오네.  
 嘯詠長存千載月    휘파람 불고 읊조림에 천년의 달이 기리 있고  
 笙歌不斷四時盃    피리불고 노래 부르며 사시에 술잔이 끊기지 않네.  
 新亭翬翬山河立    새 정자가 나는 듯하여 산하가 섰으니  
 白首遺民恨未開    백수 유민의 한이 풀리지 못하네.

黃瑗, 「龍湖亭板上韻」(『江湖旅人稿』)

이 시는 1920년에 석전 황원(1870~1944)<sup>20)</sup>이 쓴 작품이다. 섬진강변의 정자인 용호정에서의 만남과 이별을 담고 있다. 황원은 이곳에서 역사를 돌아보며 遺民으로서의 한을 그렸다. 수련에서 용호정에 올라 바라본 경물을 그렸다면, 함련에서는 시인의 심중에 보이는 경물을 적막하고 쓸쓸하게 그리고 있다. 경련에서는 용호정의 역사와 더불어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시회를 읊었던 세월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곳을 찾는 시인들의 풍류를 볼 수 있어서 여유로운 시회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반면 미련에서는 이러한 낭만적인 모임도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나라 잃은 유민으로서 한과 절망을 그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름다운 풍광 속에 정자의 멋스러움도 애잔한 슬픔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芝村 權鳳洙(1872~1940)<sup>21)</sup>도 ‘유명한 이 지역 문득 나의 지방이 아님을 깨닫고, 홀로 서풍에 서서 눈물이 떨어지고자 하네(名區轉覺非吾土 獨倚西風淚欲零).’<sup>22)</sup>라고 하며 차분하면서도 애상적인 정조를 드러냈다. 이는 명승지로 유명한 곳이 이제는 오롯이 제나라이지 못하는 한스러움을 담았다. 누정에서의 만남과 이별을 유민의 한과 연계하여 표현한 것이다. 다음 시에서는 이별의 정한이 서정적으로 그려진 것을 고찰하겠다.

20) 석전의 문학활동과 시경향에 대하여는 황수정의 「19세기 말~20세기 초 구례 지역 한시의 전개 양상」(『고시가연구』 2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326~329쪽)에서 일부 참조할 수 있다.

21) 매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石荷 權鴻洙의 형이다. 그의 문집으로는 『芝村遺稿』가 있다. 석하는 운초와 더불어 1907년에 사립학교인 壺陽學校 설립 및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22) 權鳳洙, 「龍湖亭」, 『求禮樓亭集』.

相逢時少別時多	서로 만난 때는 적고 이별한 때가 많으니
秋節龍湖幾度過	가을 절서에 용호를 몇 번이나 지났는가.
村落半依黃鳥樹	마을은 반이나 황조나무에 의지했고
滄江不盡白鷗波	창강에는 백구의 물결이 다하지 않네.
君家幸有逡巡酒	그대의 집에 다행히 돌리는 술이 있으니
我老猶能慷慨歌	우리 늙은이가 오히려 능히 강개한 노래를 부르네.
歧路連天人欲去	지름길은 하늘에 연했고 사람은 가고자 하니
古今無奈夕陽何	고금에 석양을 어찌 할 수 없네.

王師瓚, 「與柳二山遊龍臺」(『開城家稿』卷四)

이 시는 小川 王師瓚(1846~1912)<sup>23)</sup>이 용호정에서 二山 柳濟陽(1846~1922)<sup>24)</sup>과의 교유를 그린 것이다. 이산 또한 당시 구례 시인 중 한 사람으로 매천을 비롯해 폭넓은 교유와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하였다. 이는 이산과 雲鳥樓[西樓]에서의 모임을 읊은 시가 여럿 발견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25)</sup> 이 시에서도 소천은 이산과 이별의 아쉬움을 표현했다. 또한 이산의 운조루에서 누릴 수 있었던 풍류와 作詩의 즐거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미련을 통해 세월의 덧없음과 유장함을 그렸다. 이로써 가는 세월에 대한 애잔함이 드러났다. 여기에는 나라의 스러짐에 대한 애상

23) 소천은 천사일가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문인이다. 매천과도 문학적 교유를 통해 자신의 문학관을 피력하기도 했다. (황수정, 「매천 황현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6, 47~53쪽 참조)

24) 이산은 운조루 창건주인 柳爾曹(1726~1797)의 후손이다. 이산은 당시 매천과 소천, 그리고 海鶴 李沂 등과 폭넓게 교유하였다. 그의 문집으로는 『二山集』이 있다. 또한 『是言』을 통해서 1851~1922년까지 72년간의 기록을 柳氏家の 생활일기 형식으로 담아냈다.

『求禮 雲鳥樓』, 국립민속박물관·전라남도, 1988, 33쪽 참조.

『求禮 柳氏家の 生活日記 解題』, 『求禮 柳氏家の 생활일기』 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9쪽 참조.

25) 매천이 이산에 대하여 쓴 작품으로는, 「酬二山和東坡聚星堂雪詩韻見寄」, 「柳二山濟陽」, 「雲鳥樓」 등이 있다. 유당의 작품으로는 「翌日二山西樓有懷渡江諸君」, 「西樓晚興六言四首奉酬二山」, 「奉和二山山居吟」, 「從柳二山許卯園王玉泉崔灣雲錢春于龍湖亭滯雨夜話」, 「調柳二山候老人星于鰲山」, 「十月望從柳二山朴玄谷訪五峯精舍」, 「送尹海亭準遊鰲山寺轉向二山西樓 二首」, 「從二山丈遊他弗川」, 「哭柳二山」 등이 있다.

적 정조가 함께 이입되었다. 이산 또한 용호정에 대한 정한을, ‘지는 날에 슬픈 마음으로 다시 지팡이에 기대고, 봄바람이 머리칼에 부니 또 술잔을 멈추네(落日傷心還倚杖 春風吹髮且停盃).’<sup>26)</sup>라고 하였다. 이는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유민의 상심을 그린 것이다. 소천은 용호정에서의 이별에 대하여 다시 읊기를, ‘잠시 친구를 보내도 멀리 이별한 것 같아서, 바람을 임하여 쓸쓸히 홀로 난간에 기대네(暫送故人如遠別 臨風悽絕獨憑欄).’<sup>27)</sup>라고 하였다. 이렇듯 용호정에서의 이별의 정한은 애상적으로 쓸쓸하게 표출되었다. 이는 용호정에서 바로 나룻배로 드나들이 이루어져서 그 만남과 이별이 더욱 사실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虛亭瀟碧古龍臺	빈 정자 소슬하고 푸른 옛 용대에
魚鳥帆檣鏡裏回	물고기와 새 돛단배가 거울 속에 돌아오네.
崔柳精靈明月在	崔와 柳 정령이 명월처럼 있고
雲壺形勝大江來	백운산과 방호산 명승지에 큰 강이 흘러오네.

尹鍾均, 「題龍湖亭」(『酉堂集』 卷三)

이 작품은 유당의 시로 1920년에 쓴 것이다. 앞의 시보다 한층 시각화되어 있다. 기구에서는 용호정의 소슬한 모습을 그렸다. 여기에 오래 전 용대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승구에서는 정자와 어울린 자연경관을 묘사하고 있다. 물속의 모습과 하늘의 풍경,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실은 돛단배의 모습을 시각화하였다. 마치 영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거울 속에 비춰 보이는 자연의 어울림이 조화롭다. 전구에서는 용두리마을에 있었던 정자의 내력이 깃들어 있다. 즉 “최평재와 유진사가 번갈아가며 주인이 되었다.”<sup>28)</sup>는 주를 통해 세월의 흐름과 그 역사성에 힘을 실었다. 그래서 명월처럼 존재함을 그리고 있다. 또한 “백운산과 방호산[지리산] 두 산이 마주섰고, 그 가운데 강이 흐른다.”<sup>29)</sup>는 주를 첨부했다. 이는 두 산을 사

26) 柳濟陽, 「龍湖亭」, 『龍湖亭詩稿』.

27) 王師瓚, 「龍臺別梅泉」, 『開城家稿』.

28) “崔砭齋 柳進士 遞作主人.” (윤중균, 「題龍湖亭」, 『酉堂集』 卷三)

이에 두고 흐르는 섬진강의 유장함을 강조한 것이다. 곧 용호정 주변의 장구한 내력을 통해 한 나라의 역사성을 투영한 것이다. 유당은 용호정과 관계된 또 다른 작품을 통해서도 만남과 이별의 정한을 표출하였다.<sup>30)</sup> 이처럼 용호정에서 구례시인들이 보여준 정한은 유민의식이 중심이 되어 애상적으로 표출되었다.

이밖에도 구례군 산동면 시상리에 있는 雲興亭에 대한 정회를 읊은 시들이 있다. 정자 아래의 석벽에는 ‘雲興社’라고 새겨져 있어서 시사의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지리산의 수많은 골짜기 가운데 하나인 寒川 옆에 위치하여 경승지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이처럼 용호정을 비롯한 구례의 누정에 대한 시정은 앞으로도 계속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 4. 오봉산에 감도는 신이성

五峯山<sup>31)</sup>은 구례군 문척면에 소재한 백운산의 한 지맥이다. 운조루의 안산으로 유명하다. 운조루는 좌청룡 우백호의 산세와 함께 섬진강과 오봉산을 바라보고 있다. 일찍이 매천은 오봉산의 석벽을 노래하여 오봉산에 감도는 신이성을 부각시킨 바 있다. 즉 설화적인 신비한 이야기를 그려낸 바 있다.<sup>32)</sup> 매천은 이 시에서 표현하기를, ‘홀연 강 속의 금벽퇴에 놀랐고, 하늘 가운데 신선대가 우뚝 서있네(忽驚江心金碧堆 天中突兀神仙臺).’라고 하였다. 이는 신비한 모습의 금벽퇴와 신선대가 우뚝 솟아 그 신

29) “白雲方壺 兩山對峙 江流其中.” (운종균, 위의 시)

30) 「重陽遊龍湖亭」, 「龍湖秋夜」, 「上巳憶龍湖諸君子」 등을 썼다.

31) 오봉산은 앞뒤로 봉우리 두 개가 조금 높고 중간에 세 봉우리가 작고 낮다. 그 아래 文江[섬진강] 가에는 오봉정사가 있다. 오봉정사는 최익현의 문하생이었던 警堂 林顯周가 독서하며 講禮하던 곳이다. (『오봉정사기』, 『구례군지』 상, 621~623쪽 참조)

32) 황현, 「五峯石壁」, 『황현전집』 상, 93~94쪽. 이에 대해서는 황수정의 「한시에 투영된 섬진강의 풍경」(『고시가연구』 2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367~370쪽)에서 자세히 참조할 수 있다.

령함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이한 석벽을 찾은 사람 또한 신성한 마음가짐이어야 함을 그려냈다. 즉 ‘오는 자는 부질없이 보배 기운 찾지 말고, 우선 먼저 가슴 속 먼지를 씻어 버려라(來者莫謾尋寶氣 且須先濯胸中埃).’고 하였다. 이는 섬진강가의 오봉산에서 풍기는 면모에 관심을 두고 그 신성성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러한 정서가 깃든 소천의 시 두 편을 살펴보고자 한다.

丹壁千尋削五峯	붉은 벽이 천 길이나 되어 오봉산이 깎아엮으니
躋攀絕頂惜無從	꼭대기에 잡고 오르자니 길이 없어 애석하네.
夜久仙臺明月上	밤이 깊어지자 신선대 밝은 달이 오르니
江心湧出玉芙蓉	강 가운데 옥부용이 솟아나오네.

王師瓚, 「五峯石壁」(『開城家稿』卷四)

踈狂不愧鬢星星	소광한 사람이 귀밑머리 성성함을 부끄러워 아니하니
策蹇携壺到野亭	절룩말을 채찍질하고 술병을 들고 야정에 이르렀네.
官鼓驚飛沙鳥白	관아 북소리에 놀라 나는 모래밭 새가 희고
樵船橫截水烟青	나무 실은 배는 물 연기 푸르름을 옆으로 끊네.
風敲竹韻常留案	바람이 치는 대 소리는 항상 책상에 머물러 있고
日住花陰久在庭	날이 머무른 꽃그늘은 오래 뜰에 있네.
莫笑閒人經濟少	한가한 사람이 경륜이 적다고 웃지를 마라
算來未有一旬醒	헤아려 보면 한 열흘도 술 깨어 있을 때가 있지 않네.

王師瓚, 「五峯樓小酌」(『開城家稿』卷四)

이 시들은 오봉산이 갖추고 있는 신비함과 그 속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풍류를 함께 그리고 있다. 속세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구례인의 여유가 배어나온다. 이는 세상의 어려운 일에 밀리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의 부족한 힘을 안에서 축적하여 내일을 기대하는 염원을 예감할 수 있다. 여기에 낭만과 신이성이 문학적 장치로 구축된 것이다.

첫 번째 시는 인간이 함부로 다가서지 못하는 힘의 세계를 그렸다. 석벽에 오르려 하나 길이 없음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신비스런 아름다움

을 통해 신이한 능력을 고대한 것이다. 즉 전구에서 보여준 ‘夜久仙臺明月上’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는 명월의 상존을 그리고 있다. 이로써 절구에서 ‘江心湧出玉芙蓉’이라 하여 강물 속에 비치는 달빛을 마치 부용이 솟아오르듯 비유하여 신령스런 미감으로 형상화하였다.

두 번째 시는 작자 자신에 대한 겸손과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낭만적 태도를 읽을 수 있다. 수련에서 말한 ‘蹠狂’한 사람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말한다. 이는 자신의 평소 생활태도가 겸손하면서도 구애됨이 없는 성격인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래서 귀밑머리가 성성해지도록 늘어감도 인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세상의 욕심 없는 태도로 느긋한 여유를 즐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수련 하구인 ‘策蹇携壺到野亭’은 절룩말을 이끌고 술 한 병 들고 오봉루에 오르는 모습으로 구현하였다. 이는 마치 신선의 모습으로 여유로운 풍류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시인의 태도는 미런 상구에서 ‘莫笑閒人經濟少’라고 하여 비웃음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 오봉산의 멋스러움에 빠진 ‘醉仙’의 모습을 연상시켰다. 이처럼 오봉산을 형상화한 시를 보면, 산의 신비로운 위용과 그곳에 드나드는 물욕 없는 인간이 하나의 신이성으로 조화를 이룬 점을 알 수 있었다.

行到名沙亂石汀	명사의 어지러운 돌 물가에 일행이 도착하여
扁舟橫截五峯青	작은 배로 가로지르면 오봉산이 푸르네.
龍湖一笛搖秋月	용호정에서 한 피리 소리가 가을 달을 흔들고
蟹舍孤舂碎曉星	해사에서 외로이 절구질하며 새벽별을 부수네.
老去風流多感慨	늙어 가며 풍류에 감개함이 많았고
向來朋舊半凋零	이제까지 벗과 친구가 반이나 시들었네.
仙臺想有寥天鶴	선대에서 생각하면 텅 빈 하늘에 학이 있으니
爲我簫聲莫暫停	날 위해 통소 소리 잠시도 그치지 말게.

尹鍾均, 「秋七月既望與雲樵白村梅社荷田玉泉養泉等四十三人合錢沽酒泛舟五峯山下」(『西堂集』卷三)

이 시는 유당의 작품으로 壬戌(1922)년에 지어진 것이다. 유당은 제목을 ‘가을 칠월 16일에 운초·백촌·매사·하전·옥천·양천 등 43인이 돈을 모아 술을 사고 오봉산 아래에 배를 띄웠다.’라고 하였다. 유당을 비롯한 당시 구례 시인들 즉 매천의 제자를 자처했던 시인들의 어울림을 파악할 수 있다. 이름이 거론된 사람들은 거의 매천에게 사사하였던 인물들이다.<sup>33)</sup> 많은 수의 모임인 것으로 보아 구례 지역 시인들의 회합으로 보인다. 좋은 날에 오봉산 아래 섬진강가에서 배를 타고 모임을 한 것이다. 당시 문인들의 멋과 낭만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시대변화의 격랑 속에서 한문학을 고수하며 여러 시모임 등으로 결속을 유지하였다.<sup>34)</sup>

이 시에서도 그러한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유당 자신의 물욕에 대한 초탈을 알 수 있다. 평생 시업을 전업으로 하였던 유당은 말년에 거처할 집 한 칸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다.<sup>35)</sup> 실제 생활에서의 궁핍을 시로써 달래며 선적인 삶을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대의 풍류를 감지하면서 정서를 나눌 수 있었던 동료가 서로에게 힘이 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주로 구례의 명소를 찾아다니며 시를 지으며 정서를 나누었다.

수련에서는 모임이 이루어져서 장소로 이동하는 정취를 그렸다. 일행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여 배를 타고 가로지르는 정경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는 모임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읽을 수 있다. 또한 눈앞에 펼쳐지는 오봉산의 색감은 시 전체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함련에서는 여러 명의 시인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근처 누정에서 들리는 피리소리를 묘사하였다. 그리고 작은 어부의 집인 ‘해사’의 절구질로 새벽 별이 부서진다고 표현했다. 현상과 상상을 묘하게 배치하여 한 폭의 움직

33) 운초 왕수환을 비롯해서, 白村 李炳浩(1870~1943)·梅史 朴暢鉉(1863~1929)·荷田 金性權·玉泉 王京煥(1873~1943) 등을 들 수 있다. (김정환의 앞의 논문, 18쪽 참조)

34) 매천 사후에도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시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龍湖亭詩契, 方壺詩社 등이다. (김정환, 앞의 논문, 17~40쪽; 황수정, 앞의 논문, 366쪽 참조)

35) 황수정, 「西堂 尹鍾均의 삶과 詩 연구」,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355쪽 참조.

이는 그림을 연상시키고 있다. 오봉산 주변 강가에서 이루어지는 뱃놀이가 마치 신선들의 놀이마냥 신비스럽게 그려졌다. 또한 시 속에 청각적 요소를 풍부하게 가미하면서 시의 울림을 더하고 있다. 비유하기를, 피리 소리에 가을달이 흔들리고, 절구질에 새벽별이 부서진다고 하였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우며 멋스러움이 가득하다. 시인의 낭만과 정취를 한껏 드러낸 표현이다. 경련에서는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다. 세월이 흐름에 따른 무상감을 표현하였다. 늘 함께 어울렸던 벗의 부재는 인생의 쓸쓸함을 연상시킨다. 그러면서 마지막 미련에서 다시 선적인 면모를 드러내면서 풍류를 즐기며 신선처럼 주변풍광과 어울린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조화를 이루면서 인간도 그 자연의 일부가 되어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 5. 맺음말

이 연구는 구례 시단의 지역정서 표출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매천과 구례 시인들의 작품 중에서 지역성이 드러난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역의 특수한 역사와 문화가 부각되었고 그들의 정서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들이 보여준 고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작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역동적이면서도 사실적인 지역정서와 미감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곡사를 노래한 시를 통해서 강개한 정서가 표출되었다. 아름다운 경관을 갖춘 연곡사는 의병장 고헌순의 절의의 숨결이 깃든 곳이다. 이러한 과거 상흔은 구례 시단 시인들의 시정을 복돋웠다. 따라서 구례 시인들의 비장한 정신과 강개한 기상이 드러난 것이다. 연곡사에서 의연한 죽음을 노래한 시로 지역의 역사와 정신을 담아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되새김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손들에게 강한 정신적 발로로 계승됨을 그려냈다.

둘째, 용호정에서의 만남과 이별을 노래한 시에서는 애상적 정조가 드러났다. 누정문학에서 흔히 부각되는 단순한 만남과 이별의 애뜻함이 아니다. 용호정에서는 매천의 순절 후 결사된 모임이 주축을 이루었고, 주로 유민의 한을 토로하였다. 따라서 애잔한 슬픔이 주된 표현이었다. 또한 용호정에서는 주로 이별의 정한이 부각되었다. 이는 개인적인 이별의 정조를 넘어서 나라 잃은 백성의 소슬한 슬픔으로 드러났다.

셋째, 오봉산을 표현한 시에서는 낭만적인 정서가 표출되었다. 신비한 형상의 오봉산을 통해 시인은 신성함을 형상화하였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움과 멋스러움이 드러났다. 또한 시인의 낭만과 정취를 한껏 드러낸 표현을 알 수 있었다. 오봉산의 신비로운 위용과 그곳에 드나드는 물욕 없는 인간의 조화를 다룬 것이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인간이 그 자연의 일부가 되어있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오봉산을 노래한 시를 통해 지역의 낭만적인 정서가 부각되었다.

지금까지 연구를 정리하면, 매천과 구례 시인들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서로에게 문학적 상승관계로, 그리고 인간적 교류 관계를 유지하며 시단을 이끈 것이다. 이들이 시를 통해 보여준 지역정서는 때로는 강개함으로, 때론 애상적으로, 그리고 신이성을 통해 보여준 내일을 기대하는 낭만으로 표출되었다. 이로써 구례의 지역적인 미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써 향후 지역문화의 독창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權鳳洙, 『芝村遺稿』  
王粹煥 選, 『開城家稿』  
尹鍾均, 『酉堂詩集』, 명문사, 1968.  
홍영기 편, 『石田 黃瑗 資料集』 I, 順天大學校博物館, 2002.  
黃 玟, 『梅泉全集』 전5권, 전주대학교 호남학연구소, 1984.  
——, 『黃玟全集』 上·下, 아세아문화사, 1978.  
崔昇孝 編著, 『文墨萃編』 上·下卷, 미래문화사, 1985.  
『求禮 雲鳥樓』, 국립민속박물관·전라남도, 1988, 33쪽.  
『求禮樓亭集』  
『龍湖亭詩稿』
- 권순열, 「놀이 박상 연구」,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19쪽.  
김우창, 『詩人の 보석』, 민음사, 1993.  
김정환, 「梅泉詩派研究」,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6, 18쪽/17~40쪽.  
박준규, 『湖南詩壇의 研究』, 전남대학교출판부, 1998.  
白琪洙, 『美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이종묵, 『한국 한시의 전통과 문예미』, 태학사, 2002.  
——, 「일제강점기의 한문학 연구의 성과」,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2005.  
장선희, 「梅月吟社 研究」, 『한국언어문학』 47집, 한국언어문학회, 2001, 208~209쪽/215~216쪽/221~222쪽.  
황수정, 「매천 황현의 문학 연구」, 『19세기 한문학의 재조명』, 한국한문학회 제7차 전국학술대회, 2004.11.27.  
——, 「梅泉 黃玟의 詩文學 研究」,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6, 126쪽/47~53쪽.

- \_\_\_\_\_, 「梅泉詩의 表現樣相」, 『고시가연구』 1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7.
- \_\_\_\_\_, 「酉堂 尹鍾均의 삶과 詩 연구」, 『고시가연구』 21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8, 345~368쪽/ 364쪽/ 355쪽.
- \_\_\_\_\_, 「川社 王錫輔 詩 연구」, 『한문교육연구』 30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8, 309~336쪽.
- \_\_\_\_\_, 「한시에 투영된 섬진강의 풍경」, 『고시가연구』 2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366쪽/367~370쪽
- \_\_\_\_\_, 「황매천의 중국 절의지사에 대한 지향」, 『한국언어문학』 71집, 한국언어문학회, 2009.
- \_\_\_\_\_, 「왕천사 일가의 시적 交感」, 『호남문화연구』 46집,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09, 325~351쪽.
- \_\_\_\_\_, 「19세기 말~20세기 초 구례 지역 한시의 전개 양상」, 『고시가연구』 2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319~348/326~329쪽.

투고일 : 2009년 12월 31일, 심사 : 2010년 1월 11일~25일, 게재확정 : 2010년 2월 1일

<Abstract>

## A Study on Expression Local Emotion of Gurye Poetic Groups

Hwang, Su-jeong

This study examines expression of local emotion centering on poetic works by Maecheon Hwang Hyeon and poets in Gurye that show regional peculiarity of Gurye. We can identify peculiar emotion and realistic aesthetics of each region through the poetry that highlights locality. In addition, we can illuminate dynamic and realistic aesthetics through the poetry. Yeongok Temple, Yongho Pavilion and Mt. Obong are representative places with history and elegant tastes of Gurye people.

First, poetry on Yeongok Temple expresses righteous emotion. Historical traumas in the temple with beautiful landscapes led Gurye people to have righteous spirit and brave mind. The poetry describes such reflection handed down to descendants as powerful mental heritage as time lapses.

Second, the poetry on Yongho Pavilion shows sad feeling. It expresses grief of the migrants. It indicates sorrow of the people who lost their nation beyond sorrow of personal separation.

Third, the poetry on Mt. Obong highlights romanticism. It shows romantic senses through mysterious appearance of the mountain. It was designed to soothe present difficulties with elegant tastes and art and music. And it was to overcome present impasse and gain power to open tomorrow.

Thus, Hwang Maecheon and poets in Gurye longed for local history and elegance and described true and honest feeling, on which they expressed their peculiar emotion. It is righteous and romantic description of Gurye people's

emotion.

Key words : regional emotion, Hwang Maechon, poets in Gurye, righteous,  
sorrow